

김현미 장관, “글로벌 항공 미래비전은 대한민국에서” 강조 국내서 처음으로 열리는 IATA연차총회 찾아 업계 발전 축하 및 위상 홍보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‘제75차 IATA연차 총회’에 참석하여 국제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 세계 항공사 대표 및 각국의 대표단들의 노력과 협조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.
- IATA 연차 총회는 항공업계의 UN회의 성격으로 회원국인 287개 전 세계 항공사, 항공기 제작사 최고경영자 및 항공당국 등 약 1,000여 명이 참여하여 항공산업과 안전, 운항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규제개혁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며,
 - * 290개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국제선 운임 등에 대해 항공사의 의견을 대변하며,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와는 별개의 기구
- ‘미래의 비전(The vision of Future)’이라는 주제로 항공산업의 미래, 항공규제 개선,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항공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전 세계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.
-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대한민국의 영토는 세계 109위에 불과하지만, 대한민국 항공사가 누비는 하늘길은 세계 7위”라면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항공시장에서의 항공위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,
 - 지난 2001년 이사국에 첫 진출한 이후 ICAO이사국으로 세계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고, 특히, 오는 9월 제40차 ICAO총회에서 치러지는 ICAO 이사국 7연임 선거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.

2019. 6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